“장애는 견뎌내는 것…자부심 갖고 살겠다”

카페홀더 광주도시철도공사점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진미선씨

4살에 고열로 청각 잃어…수어 통해 풍부한 감정표현
카페 매니저 이어 수어 중창단·수어학교 강사 활동도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죠,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매니저로, 바리스타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는 ‘카페홀더’ 매니저 진미선(58)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카페홀더에서 만난 진씨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채로 청색 앞치마를 두르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했다.

진씨와의 인터뷰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목 대표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진씨는 수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진씨는 “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농인 역시 공식 언어인 수어를 사용한다. 수어만으로도 인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했다.

진씨는 해남에서 태어나 7살 때 광주로 이사를 왔다. 4살에 고열로 인해 청각장애를 갖게 됐고 현재까지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진씨는 현재 광주도시철도공사 카페홀더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다.

카페홀더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의 줄임말로,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목 대표가 제안해 이름 붙였다.

광주 장애인 단체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광주시에 카페 개소 제안을 했고 도움을 받아 2012년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카페홀더 1호점을 열었다.

현재 카페홀더는 광주도시철도공사점을 포함해 2014년 문을 연 광산구청 2호점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인 바리스타와 근로지원인 등 9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인 바리스타로 이뤄진 카페홀더는 메뉴 주문도 색다르다. 직원이 직접 그려 만든 메뉴 카드를 들고 손가락으로 잔 수를 표시하며 주문하면 된다.

진씨는 딸과 아들, 실력있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엄마이자 아내기도 하다.

진씨는 21살 농인 교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 24살에 결혼했다. 남편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봉진 화가로, 진씨와 같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진씨는 하남공단 부품 조립, 공공 근로, 분식집 운영, 옷 수선과 뜨개질 등 다양한 일로 삶을 일궈나갔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이 대상 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시어머니께 고스란히 드릴만큼 가족과의 관계도 애틋하다.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진씨는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

진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한 시간 동안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또 수어 중창단 단원이자, 수어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수어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업인 바리스타로서 최근에는 드립백 커피를 출시해 손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진씨는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닌 견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씨는 “장애가 이겨내는 것이라면 내 자신의 모습과 싸워야 하고 스스로를 부정해야 한다. 그러고 싶지 않다”며 “장애를 밀어내지 않고 내 모습을 사랑하고 농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남구 사직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사직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남구 사직동 사직맨션에서 개최됐다.

창립총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 오혜경, 이기주, 조정숙, 신명희, 최성혁, 조미경씨를 비롯해 주민협의체 위원, 남구청 도시재생과 주재현 계장,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수환 센터장, 사직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허달용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감사(이수원)와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안) 승인,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 설립 경비 등의 안건을 다뤘다.

총회 초대 이사장으로는 오혜경씨가 선출됐다.

오혜경 이사장은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시작하는 씨앗과 같은 단계다. 좋은 의견과 말들은 좋은 씨앗이 된다. 조합원과 지역 주민과 함께 그 씨앗들을 심어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사직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마을가게, 마을공방 등의 거점시설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을 창출해 마을에 환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직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혹서기 안전캠페인

전남개발공사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캠페인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중점 점검하며 혹서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과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혹서기 무더위 시간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작업 여건을 변경하는 작업중지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근로자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LH송화마을8단지, 이웃사이 건강요리 강좌 성료

LH송화마을8단지(센터장 고미란) 주거행복지원센터는 4일 “LH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총 3회에 거쳐 행복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조리 쫀득한 이웃사이 건강요리’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외되고 있는 경로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전통요리 전수자인 ‘윤경’ 요리 연구가를 초청한 가운데 노년의 건강한 삶을 돕는 건강 개념·향상을 위한 습관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견과류 바람떡과 대추차, 닭장떡국과 여름동치미, 꼬마김밥과 오이새우나물 등 다양한 요리를 시연하고 고령의 어르신들과 직접 요리를 만들어 시식하는 경험과 재미를 제공해 한층 더 돈독한 이웃사이 만들기에 의미를 더했다.

고미란 센터장은 “LH송화마을8단지는 다양한 지자체 지원사업에 응모해 한국화 꽃그리기, 우아한 프랑스자수교실, 음악창작교실, ABC 영어교실등을 매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지원사업 유치로 입주민에게 현실적인 접근성과 친근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써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입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영암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물놀이 활동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일 “최근 금정면 뱅뱅이골 기찬랜드에서 중증장애인,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더위야 물렀거라’를 주제로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놀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자연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삶의 활력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중증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물놀이 활동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동심을 키우며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냈다.

영암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광군청년센터 ‘스크린 골프왕’ 조민영·김아람 우승

영광군청년센터는 4일 “최근 골프존파크 영광 럭키점에서 2022년 영광 청년올림픽 ‘스크린 골프왕’ 대회를 개최해 남자부 조민영씨, 여자부 김아람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청년센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우울감·무기력증 해소, 활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스크린 골프왕 대회는 남·여 32명이 출전해 팽팽한 승부를 펼쳤으며 경기장은 강원도 횡성의 옥스필드CC로 18홀 코스 성적으로 최종 승자를 가렸다.

남자부는 조민영씨가 마지막 18홀에서 이글 퍼팅으로 2타를 줄이며 대역전승을 거뒀다.

여자부는 김아람씨와 허희진씨의 한 타 차 줄다리기 싸움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김아람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국형진 영광군청년센터장은 “코로나19가 가파르게 재확산되는 가운데 신체 접촉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한 활동들로 지역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 이로동바르게살기委,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목포시 이로동바르게살기위원회가 최근 이로동 관내 저소득층 6세대에 돼지고기, 라면, 치약, 화장품 등 생필품(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신수관 이로동바르게살기위원회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 작은 정성이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영설 이로동장은 “이로동바르게살기위원회의 지원으로 취약계층과 정을 나누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이예림 조선대 석사과정생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최우수논문상

조선대학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이예림 석사과정생이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22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22 종합학술대회에서 이예림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이진렬)은 ‘브랜드 퍼스널리티 컬러가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논문은 퍼스널리티 컬러맵을 활용해 퍼스널리티 컬러 기반의 브랜드 컬러 결정방식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예림 석사과정생은 “이번 수상을 통해 브랜드 퍼스널리티 컬러를 통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담양군의회, 의정활동 특별연수 실시

담양군의회는 최근 담양리조트 성산홀에서 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2년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해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을 초빙, 조례안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입안 방법,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안 심사 방법, 예산편성 심사 방향·내용분석 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용만 군의회 의장은 “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 유지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 서비스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경찰서, 피서지 합동 순찰

보성경찰서는 4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보성 온마을 합동순찰대’를 편성해 율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 온마을 순찰대’는 보성경찰서, 보성군자율방범연합회,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 순찰은 피서지 각종 성범죄와 강·절도 등 여행성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오임관 서장은 “이번 합동 순찰을 통해 보성이 가장 안전한 피서지로써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나주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청원경찰 표창

나주경찰서는 4일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나주시 청원경찰 김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상을 받은 청원경찰은 지난달 4일 현금을 교환하는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의 모습을 목격했고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임을 의심해 112로 신속히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본사 손님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 ▲김요성 〃 문화체육실장 ▲류미수 〃 복지건강국장 ▲이영동 〃 대변인